

#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 – 아버지간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 Generative Fathering on Erikson's Perspective and its Relationship with Attachment Security of Children \*

초당대학교  
강사 양미경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주거학과  
교수 조복희

Chodang Univ.  
Lecturer : Mi Kyung Yang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Prof. : Bok Hee Ch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s applied to the Erikson's concept of generative fathering that meets the needs of the next generation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ve fathering and the attachment security. Sixty-five of 30-36 months old children ( 37 boys and 28 girls) and their par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at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of parental generativity, which include items on their support of physical development,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Children's attachment was reported by mothers using the Attachment Q-set.

Results revealed that father's parental generativity was noted as 3.09 in 1 to 5 child rearing activities. B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s sex and child's birth order. Also, it was found that children's secure attachment to their fathers was not high. There was an association between fathering generativity and children's secure attachment. This findings imply that father's active child rearing participation will increase children's secure attachment.

\*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 수행은 일반적으로 결핍 패러다임(deficiency paradigm)에서 접근해 왔다. 즉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을 비교하여 그 발달상의 차이점을 추론하여 결론을 내는 접근법이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으로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보다 직장 업무와 같은 사회적 역할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아버지들 스스로가 자녀양육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Hawkins & Dollahite 1993). 이러한 관점은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양육책임을 어머니한테 일임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이 부적합하리라고 강조되고 부모 역할을 너무 한정하여 정의하였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바람이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2급 부모(second-class)이며 (김광웅·박성연, 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서의 기능적 부재로 해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에는 Kotre(1990)를 들 수 있다. 그는 Erikson의 생산성(generativity)이라는 발달과업을 아버지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 노릇을 재조명하였다. 생산성은 자녀를 낳는 생물학적 생산성(biological generativity),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로서의 생산성(parental generativity), 문화 전수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생산성(social generativity)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부모로서의 생산성은 자신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능동적으로 돌보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후 Snarey(1993)도 자녀의 발달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 주는 자녀 양육 생산성을 강조하였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의 발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Hawkins, Christiansen, Sargent & Hill, 1993),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과정을 돌보기 위해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기꺼이 제공하는 양육생산성을 발휘할 경우 자녀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은 영유아의 애착 유형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아동의 심리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의 애착대상은 어머니에게 한정될 수 없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보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동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애착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의 애착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녀양육 생산성이란 아버지 자신의 관심을 자신으로부터 자기자녀로 확대시키므로써 자녀개인의 발달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 주기 위한 물질적·정신적 자원제공을 의미하며, 그 하위개념으로 사회 정서적 영역, 지적영역, 신체적 영역이 포함된다. 또한 애착 안정성은 유아가 애착 대상자에 대한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30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버지-유아 65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37명, 여아 28명이었으며 출생순위로는 첫째가 29명 둘째 이상이 36명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42명이었고 36세 이상이 23명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었으며 어머니는 취업과 비취업이 반반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척도」와 「애착 Q-Set」이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척도는 Snarey(1993)가 제작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문항 중에서 유아기에 해

당하는 문항을 추출한 후,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우리 문화에 맞게 고쳐 측정하였다. 자녀양육 생산성 척도의 개념적 구성요인은 아동학 전공 교수 5인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아 38문항이 선정되었다. 3개의 하위요인, 즉 사회·정서적 요인, 지적요인, 신체적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2, .86, .77이었다.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aters와 Deane(1985)의 애착 Q-set(Waters, 1987)를 이영환(1994)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이나 그 밖의 일상적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문항이 담긴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90개 항목은 애착행동과 탐색행동간의 균형을 이루는 안전기반 행동, 양육자가 달래주는데 대한 유아의 반응, 정서·사회적 상호작용, 양육자에 대한 의존성, 탐색행동, 정의적 반응, 사회적 참조 및 기타, 사회적 인지 등 애착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어머니가 유아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자녀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Q-Set방법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Waters와 Deane(1985)이 조사한 이 도구의 신뢰도를 보면 2명의 관찰자간 일치도는 .75-.95였으며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일치도는 .59-.93이었다.

연구절차는 어머니가 유아의 애착 행동을 관찰, 1주일 뒤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조사는 애착을 관찰하는 가정에 애착 Q-Set 카드와 함께 배부한 후, 주말 등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SAS/PC+로 상관관계, 일원변량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자녀양육 생산성과 애착 안정성의 경향

자녀양육 생산성에 대한 하위요인별 점수의 평균

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5점 점수에서 평균 3.09점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요인은 신체적 요인(M=3.32)이며 다음이 지적요인(M=3.14)이고 마지막으로 사회 정서적 요인(M=2.84)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사고력을 키워주는 활동보다는 신체적이고 특별한 비전형적인 놀이 등과 같은 '신체적 형태'의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사회 정서적 요인, 지적요인, 신체적 요인에서 모두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보다 남아의 자녀양육 생산성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Snarey(1993)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양미경(1996)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특히 아들의 성 역할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Siegal, 1987) 이러한 관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사회 정서적 요인, 지적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는 둘째 이상 자녀보다 첫째 자녀의 자녀양육 생산성이 높았다. 출생 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첫아이는 둘째 이상의 자녀와 다르게 부모들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ke, 1996).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사회 정서적 요인, 지적요인, 신체적 요인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주당 10시간 이상을 같이 지내는 아버지는 4시간 이하로 지내는 유아-아버지보다 자녀 양육 생산성이 높았다. 그러나 신체적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사회 정서적 요인, 지적 요인, 신체적 요인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취업모를 둔 아

〈표 1〉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하위변인 비교

		사회정서적변인		지적변인		신체적변인		전 체	
		M	S-t#	M	S-t#	M	S-t#	M	S-t#
유아성별	남아	3.48	a	3.06	a	3.17	a	3.30	a
	여아	3.15	b	2.47	b	2.74	b	2.88	b
	t	3.76*		8.61**		6.42*		8.49**	
유아 출생순위	첫째	3.56	a	3.17	a	2.52		3.57	a
	둘째이상	3.38	b	3.11	b	2.47		2.93	b
	t	7.13**		11.37***		1.31		9.63**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2.47	a	2.79	a	2.65	b	2.82	b
	36세 이상	3.41	b	3.00	b	3.40	a	3.22	a
	t	14.20***		9.42***		16.78***		4.85*	
유아-아버지 간에 함께 지내는시간 (주당)	1-4시간	3.01	b	2.85	b	2.66		2.70	b
	5-10시간	3.14	ab	3.10	ab	2.68		2.83	ab
	10시간 이상	3.84	a	3.87	a	2.52		3.60	a
	F값	7.16**		5.59*		1.19		11.99**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모	3.41	a	3.11	a	3.03	a	3.36	a
	비취업모	2.37	b	2.47	b	2.16	b	2.78	b
	t	10.75**		10.76***		4.35*		11.61**	

# : Scheffé - test \*p < .05 \*\*p < .01 \*\*\*p < .001

버지가 비취업모를 둔 아버지보다 자녀양육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이 가사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역할분담 차원에서 자녀양육은 아버지의 부담으로 남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구하기 위하여 Waters(1987)가 제시한 안정성 기준점수와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Q-Set 점수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가한 아버지에게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그 범위가 -.19에서 .53까지였고 애착 안정성의 평균은 .15(표준편차 = .07)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애착 Q-Set을 사용한 선행연구(나중혜, 1993; 이영환, 1994; 이정희, 1993;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안정성 범위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점수는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애착 안정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2/3에 속하는 유아는 '안정된 애착'으로, 하위1/3에 속하는 유아는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에 속

하는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상위 1/2은 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나머지 1/2에 속하는 유아는 안정성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이영환, 1994)해 본 결과 애착 유형 분류기준 점수는 .09로 나타났다. 애착유형 분류 점수가 이영환(1994)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15로 보고하였으며, 나중혜(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27, 탁아교사의 경우는 .16으로, 이정희(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26으로 보고하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에서는 안정성 점수가 .36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아버지를 애착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애착유형 분류 기준점수는 어머니 경우나 탁아교사의 경우 보다 훨씬 낮으며, 이영환(1994)의 연구결과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유아간의 애착이 어머니-유아간의 애착보다 낮기 때문이기도 하나, 애착 준거점수를 우리나라 것(이영 등, 1997)이 아닌 Waters의 것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아-아버지의 애착 안정성은 유아의 성별에 따

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이 여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아버지간 애착 안정성 차이가 없다는 이영환(199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생물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아들과 딸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출생 시부터 아버지는 남아와, 어머니는 여아와 신체적 접촉을 더 자주하며 자극 또한 더 많이 준다는 지적에 기초해 보면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간에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 비교는 첫째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이 둘째 이상-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35세 이하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유아-36세 이상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아버지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은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높다. 10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는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5-10시간, 1-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은 취업모-유아와 비취업모-유아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어머니의 취업이 아버지와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2.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 애착 안정성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 애착 안정성간에는 하위요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

<표 2>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 차이

변 인	구 분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	
		M	S-t <sup>#</sup>
유아의 성별	남아	.18	
	여아	.08	
	F		4.71*
유아의 출생순위	첫째	.21	
	둘째 이상	.08	
	F		8.45*
아버지의 연령	35세이하	.13	
	36세이상	.14	
	F		.05
유아-아버지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주당)	1-5시간 미만	.06	b
	5-10시간 미만	.12	ab
	10시간 이상	.22	a
	F		4.61*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모	.17	
	비취업모	.11	
	F		1.53

# : Scheffé-test \*p< .05

이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의 하위변인들과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사회 정서적 요인, 지적 요인, 신체적 요인의 하위변인 모두 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애착 안정성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 정서적, 지적, 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하여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녀의 애착안정성 발달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버지가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의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Lamb(1975)의 주장이나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행동연구에서 아동은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에게도 애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영환, 1993; 김광웅, 박성연:1995).

#### IV. 논의 및 결론

다음 세대의 양육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의

Erikson의 생산성개념이 이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Erikson의 사회 심리적 발달과업은 Kotre와 Snarey에 의해 부모됨의 생산성(Parental generativity)으로 유형화되었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요구되고 자녀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양육 생산성으로 간주하였다.

아버지와 자녀양육 생산성과 그들의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와 아버지를 65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보통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적요인, 사회 정서적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들은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사고력을 길러주는 활동보다는 신체적인 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이므로 지적활동이 강조되지 않은 것이라 여겨지며,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활동이 달라(김광웅, 박성연, 1995) 아버지는 자녀와 신체적인 활동, 어머니는 언어적인 활동으로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성과 아버지의 양육 생산성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한 결과 여아보다 남아의 아버지 양

<표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의 상관관계

구 분	사회 정서적 요인	지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전 체
유아-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	.32*	.30*	.29*	.31*

\* $p < .05$

<표 4>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하위변인에 따른 애착 안정성 하위영역의 변량분석결과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 M(SD)	애착안정성이 낮은 집단 M(SD)
		사회 정서적 요인	4.95(.57)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F	12.53***	
	지적 요인	4.26(.60)	3.449(.63)
	F	9.84***	
	신체적 요인	3.55(.63)	2.62(.74)
	F	10.07***	

\*\*\* $p < .001$

육생산성이 높았다.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남아의 양육참여가 많거나 (김광웅·이인수: 1998, 양장애, 1999), 이와 반대로 여아에게 높은 양육참여, 또는 성별에 대한 차이가 없다(Snarey, 1993)는 세 결론이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서도 일관적인 것은 아버지들은 특히 아들의 성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자랄수록 아버지는 남아와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 측면에서 같은 해석을 낼 수 있으며 아직도 우리 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자녀 애착 안정성도 남아에 대한 애착이 높았다는 것은 자녀양육 생산성과 애착안정성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동은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에게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때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남아에 대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생산성과 안정 애착이 공통적으로 높은 결과는 아버지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명백하며(김광웅, 박성연, 1995) 아버지들은 여전히 남아에 대한 기대가 여아보다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고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기능적 부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머니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녀의 발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들은 질적 수준이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가치관이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돌보고자하는 바램을 지니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다.

## ■ 참고문헌

1) 김광웅, 박성연(역)(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

달, 이대 출판부.

- 2)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제19 권 2호.
- 3) 나중혜(1993).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 권 4호.
- 5)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I: 아버지의 역할 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6)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개발연구, 18(2), 131-148.
- 7) 이영환(1993).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8) (1994).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Q-Sort 가정관찰, 한국심리학회지, 제7 집 2호.
- 9) 이정희(1993).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0) Bigner, J. J.(1977), "Attitude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2.
- 11)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Y. : Norton.
- 12) Fordi, A. M., Lamb, M.E., Leavitt, L. A., Donovan, W. L., Neff, C., Sherry, D.(1978).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the Faces and Cries of Normal and Premature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90-498.
- 13) Hawkins, A. J., Christiansen, S. L., Sargent, K. P., & Hill, E. J.(1993). Rethink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4, 531-549.
- 14) Kotre, J. & Hall, E.(1990). Seasons of life: Our dramatic journey from birth to death, Boston: Little, Brown.
- 15) Parke, R.D.(1996). Fatherhoo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16) Snarey, J.(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four-decade stu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7)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tony Brook, New York.
- 18)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er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41-6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